

제61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차수	2차 임시
일시	19. 11. 22. 13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X	O	O	X	O	O	X	X	X	X	O	O	O

□ 보고 안건

1. 성평등위원회 질의서

2. 기타 단체 질의서

□ 논의 안건

1. 선거 관련 질의서

-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하여 논의함.
- 선거관리위원회와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 유관기관(중대신문, UBS, 중앙문화, 녹지,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사)이 아닌 단체가 선거운동본부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 공직선거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면,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운동본부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온라인에 게시하는 활동은 할 수 있다는 의견. 단,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학생사회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 학생사회에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이를 적용한다면, 학교 또는 학생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
- 위와 같은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의견.
- 성평등위원회가 발송한 질의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성평등위원장이 전달해준 해당 사유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공지방에서 공유함.
- 총학생회장이 해당 질의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에게 전달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니 성평등위원회에서 직접 선거운동본부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을 성평등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함.
- 단과대학과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성평등위원회 차원의 질의서를 발송하기 위해 선거운동본부의 메일 주소를 알려준 것이라고 대다수의 대표자가 말함.
- 성평등위원장이 작성한 사유에서 "경유"라는 의미를 중선관위가 선본의 메일 주소를 알아봐준 것만으로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함.
-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유관기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선거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 선거운동본부는 이를 충분히 인지해야 함.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본부가 판단하여 답변하며 책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있음.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공식 선거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1) 학교 및 학생회 소속 단체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한다.

=> 총 7단위 중 찬성 6단위, 반대 1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

2) 1번 의결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 작성 및 게시

=> 총 7단위 중 찬성 7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

3) 성평등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게시방법을 확정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질의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전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점에 대한 사과문 요구한다.

=> 총 7단위 중 찬성 6단위, 반대 1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

□ 기타 안건

1.